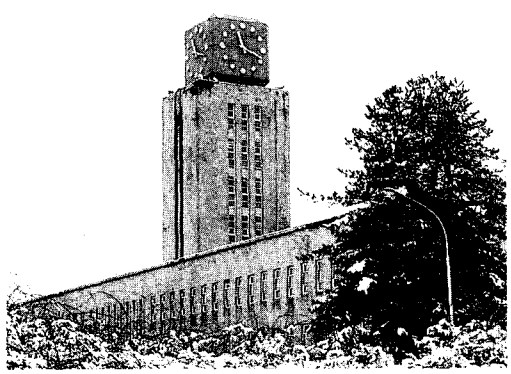
학술 발표회 개최교 소개

박 정 응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장/토목공학과 교수)

'9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5월 9일 10일) 개최 대학인 서울산업대학교는 한말 국운 개척을 「산업입국」에 둔 고종황제의 어의를 받들어 1910년 4월 15일 어의궁(於義宮)터에 공업전수학교로 건학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80여년 전통의 국립대학교로서 이 나라 산학발달사의 주맥을 이루어온 공업기술 교육의 전당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개방하여 평생 학습사회에 부응하며 새로운 정보, 지식, 기술을 수용하고 급변하는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고도의 기술과 이론을 접합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학입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산학협동 교육과 실험실습교육에 중점을 두어 창조적 지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주역이 되려는 사명감을 가진 고급 산업 인력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의동 공업전수학교」로 시작하여 80년이 지나오는 동안 평균 7~8년에 한번씩 도약의 발전적 성취를 거듭하는 동안 1982년에는 「경기공업개방대학」으로 4년제 국립으로 변신을 하고 1989년에는 대학원의 시작으로 바야흐로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2년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전 서울공대 campus)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 6개 학부 32개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과는 1935년에 설치되어 현재는 제2(건설)공학부에 속해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토목인이 4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30명 정도의 학사와 30여명의 석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재학생 5백여명과 전임교수 9명이 면학분위기 제고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 수리실험실을 건설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수공실험실의 실현을 본 것은 대한민국 토목사에 남는 일이었습니다.